

Robertson, 1993; Vancouver, Thompson, & Williams, 2001). 이후,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양육 상황에서 부모가 갖는 양육 효능감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부모의 양육 효능감에 관한 연구들은 양육 효능감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태도뿐만 아니라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발달적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Dumka, Prost, & Barrera, 2002; Jones & Prinz, 2005). 스스로의 양육 행동에 높은 효능감을 보이는 부모는 자녀와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하고(Conrad, Gross, Fogg, & Ruchala, 1992), 부모-자녀 관계에서 높은 관계만족도를 보이고 부모 자신의 역할에도 만족한다고 하였다(박현숙, 김이영, 2009; 서혜영, 이숙현, 1999). 또한 양육 효능감이 높은 부모들은 영아에서부터 학령기 자녀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연령에 관계없이 양육에 높은 자신감을 보였으며(Bugental, Blue, & Cruzcosa, 1989; Teti & Gelfand, 1991), 자녀에 대한 정서적, 사회적 지원에서 차이가 있고 자녀의 요구에 높은 민감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숙, 문혁준, 2005; 김현미, 도현심, 2004; Cutrona & Troutman, 1986; Donovan & Leavitt, 1985; Donovan, Leavitt, & Walsh, 1990; Dumka, Stoerzinger, Jackson, & Roosa, 1996; Lovejoy, Verda, & Hays, 1997).

부모의 효능감과 자녀의 발달 간의 관계에서는 부모의 효능감에 따라 자녀의 적응적 행동 발달과 인지적 수행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Bornstein & Tamis-LeMonda, 1989; Coleman & Karraker, 2003). 또 부모의 낮은 양육 효능감은 자녀의 낮은 사회정서발달과 관련 있으며 효능감이 낮은 부모의 자녀는 학교에서도 학업적 성취가 낮음이 밝혀졌다(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2001; Donovan & Leavitt, 1989;

Swick & Hassell, 1990).

부모의 양육 효능감이 양육에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문제는 양육 효능감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이며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이다. 초기의 양육 효능감 연구는 전반적인 양육 상황과 일반적인 부모 역할을 중심으로 양육 효능감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양육 효능감을 독립적으로 측정하기보다 부모의 양육에 관련된 다른 척도에 포함되어 하위요인의 한 가지로 측정되었다(Abidin, 1986; Campis, Lyman, & Prentice-Dunn, 1986; Gibaud-Wallston & Wandersman, 1978). 또한 효능감(efficacy)의 용어가 구체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에는 자존감(self-esteem) 혹은 유능감(competence)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였다(Bugental, 1991; Frank, Jacobson & Hole, 1986; Gibaud-Wallston & Wandersman, 1978; Johnston & Mash, 1989).

효능감, 자신감, 유능감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현상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Bandura (1982)의 자기효능감 이론이 등장한 이후 사회과학 분야에서 인간의 행동을 다루는 연구의 전반에 걸쳐 효능감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부모관련 연구에서도 양육 효능감(parental/parenting efficacy), 부모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 beliefs of parents) 등의 용어가 부모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기대감을 표현하는 용어로 활용되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여러 가지 개별적 상황에 따라 특정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다면적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Bandura, 1989). 따라서 Bandura(1997)는 삶의 여러 영역에 따라 달라지는 구체적인 문맥에서 각각의 효능감을 측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측정

하기 위한 도구도 초기에는 일반적인 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나, 차츰 아동의 연령과 양육행동의 유형에 따라 양육이 가진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부모의 효능감을 이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Allen, 1993; Ballenski & Cook, 1982; Coleman & Karraker, 1997; Teti & Gelfand, 1991).

이에 Coleman과 Karraker(1997)는 양육 효능감을 1)과제별(task-specific), 2)영역별(domain-specific), 3)영역일반(domain-general) 효능감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과제별 양육 효능감은 구체적인 양육 과제를 부모가 잘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감과 기대감을 의미한다(Coleman & Karraker, 2003). 부모의 효능감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수행과제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자녀가 영아일 경우, 수유,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등의 양육행동을 바탕으로 효능감을 평가한다(Teti & Gelfand, 1991).

둘째, 영역별 양육 효능감은 구체적인 양육 과제를 비슷한 영역으로 묶고 각각의 영역에서 부모가 인지하는 자신감과 기대감을 의미한다(Coleman & Karraker, 2003). 영역별 양육 효능감의 영역을 예로 들면 자녀와 함께 놀이하는 영역, 자녀를 교육하는 영역, 사랑과 지원을 해주는 영역 등이다(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1996; Coleman & Karraker, 2000).

마지막으로 영역일반 양육 효능감은 자녀 양육의 전반적인 상황과 양육 행동에 관하여 부모가 스스로 인지하는 자신감과 기대감을 의미한다(Coleman & Karraker, 2003). 현재까지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다룬 연구의 대부분이 이 영역일반 양육 효능감에 초점을 두고 부모의 효능감을 측정하여 활용하여왔다(Dumka et al., 1996; Wells-Parker,

Miller, & Topping, 1990).

Bandura(1997)는 영역에 구분 없이 일반적으로 측정된 효능감보다 영역별로 구분하여 측정된 효능감은 개인이 해당 영역에서 가진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한다고 하였다. MacPhee, Fritz와 Miller-Heyl은(1996)는 높은 양육 효능감을 가진 어머니가 보다 적절한 양육 실재를 보인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양육에서의 영역별 효능감은 영역 일반 양육 효능감이 예측하지 못하는 아동의 발달적 측면과 사회적 유능감도 예측하였다(Izzo, C., Weiss, Shanahan, & Rodriguez-Brown, 2000; Coleman & Karraker, 2003; Swick & Hassell, 1990). 이와 같이 영역에 따라 구체적으로 양육 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은 양육 효능감과 부모의 양육 행동, 아동 발달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는 척도들은 대부분 영역일반 양육 효능감을 다루고 있다. 또한 양육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영역 중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훈육 상황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Campis, Lyman, & Prentice-Dunn, 1986; Johnston & Mash, 1989). 영역별 양육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도 통계적으로 불안정한 요인구조를 나타내거나 타당도를 검증받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Allen, 1993; Coleman & Karraker, 2000). 따라서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영역별 양육 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Meunier와 Roskam(2009)의 양육 효능감 척도인 Echelle Globale du Sentiment de Competence Parentals(EGSCP)는 앞서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측정하고 있던 여러 가지 척도를 종합하고 양육 효능감만을 측정하는 타당화된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EGSCP는 효능감이 영역별로

측정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기존에 개발된 양육 효능감 척도는 활용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아동의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사용되었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여 EGSCP는 3세에서 7세 사이의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척도의 적용범위를 넓혔다.

EGSCP의 가장 큰 특징은 영역별 양육 효능감의 측정뿐만 아니라 효능감의 형성에 관련하는 기타 인지구조를 측정하여 양육 행동의 인지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효능감은 인간의 행동이 일어나고 행동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예측하는 중요한 인지적 요소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Haidt & Rodin, 1999). 그러나 여러 인지적 요소 중 효능감 하나만으로 행동 기제와 과정을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Meunier와 Roskam(2009)는 사회 학습 이론에서 효능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다른 인지구조를 함께 측정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Bandura(1977, 1989)는 효능감과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인지적 요소를 언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Meunier와 Roskam(2009)는 부모의 양육 효능감과 연관시킬 주요 인지구조 세 가지를 선정하였다. 첫째, 적절한 행동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다고 생각하는가를 의미하는 결과 통제 신념(control-of-outcome), 둘째, 일어나는 행동이 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의미하는 통제 소재(locus-of-control), 셋째, 요구되는 행동을 얼마나 하고 싶어 하는가를 의미하는 동기(motivation)가 그것이다. 그리고 위의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부모가 양육

과정과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보는 부모의 결과 통제(parental control-of-outcomes), 자녀의 행동에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보는 부모의 책임소재(parental responsibility), 부모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육을 하고 싶어 하는가를 보는 수행동기(mastery motivation)의 요인을 선정하여 척도 구성에 포함하였다.

EGSCP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훈육(discipline), 놀이(play), 애정(nurturance), 일상체계 조직(instrumental care), 교육(teaching) 요인과 부모의 책임소재(parental responsibility), 결과 통제(parental control-of-outcomes), 수행동기(mastery motivation)의 8개의 하위요인을 확인하였다.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5개의 1차 요인으로 구성된 양육 효능감(SEBs) 요인과 3개의 1차 요인으로 구성된 관련 인지구조(cognitive constructs) 요인의 2개 2차 요인 구조를 확인하였다. EGSCP의 요인별 문항은 훈육 요인 7문항, 놀이 요인 5문항, 양육 요인 5문항, 일상생활 지원 요인 5문항, 교육 요인 3문항의 양육 효능감 요인 25문항과 책임소재 요인, 결과 통제 요인, 수행동기 요인 각 4문항의 인지구조 요인 12문항으로 총 37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EGSCP를 번안·수정하고 우리나라 부모를 대상으로 한국판 양육 효능감 척도(K-EGSCP)의 국내적용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구조의 탐색을 실시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탐색된 요인구조모델의 적합도를 검증하여 한국 표본을 대상으로 한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준거척도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공인타당도 검증과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를 산출하여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판 양육 효능감 척도는 본 연구에서 검증한 양육 효능감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고 양육 효능감의 정

확한 측정과 양육 효능감의 형성에 관련하는 인지 구조의 역할을 밝혀 양육 효능감의 역할을 밝혀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본은 사회 경제적으로 다양한 서울 시내의 18개 구와 수도권의 4개 도시에서 편의표집되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하여 연구대상 1과 연구대상 2의 별도 표본이 표집되었다. 연구대상 1은 서울 시내 4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4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어 212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88.3%). 연구대상 2는 서울과 수도권 4개 도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7곳을 대상으로 76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어 657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86.4%). 회수된 설문지 중 어머니 이외의 양육자가 응답한 설문지와 유아의 연령이 적절하지 않고 응답내용이 미흡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각각 202부, 423부의 설문지가 분석되었다. 각 연구대상의 자세한 특징은 아래와 같다.

연구대상 1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연구대상은 원 척도의 대상 연령 범위인 3세부터 7세 사이의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 202명이었다. 어머니의 연령 범위는 21세부터 47세까지였으며 평균 연령은 35.4세, 자녀의 평균 연령은 5세였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 55.4%, 여아 44.6%로 남아가 다소 많지만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연구대상자인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29.2%, 대졸 62.9%, 대학원졸 이상이

7.9%로 대체로 고등교육을 이수한 상태였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취업모가 39.1%, 미취업모가 60.9%였으며 취업모의 경우 사무/기술직이 13.9%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가정의 월 평균수입은 100만원 미만 2%, 100-199만원 5.0%, 200-299만원 미만 21.3%, 300-499만원 36.1%, 500만원 이상이 27.2%(미응답 5.4%)로 본 연구대상의 경제적 수준은 중상류층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 2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연구대상 1의 연령 범위에 1-2세 영아를 포함하여 1세부터 7세 사이의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 42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어머니의 연령 범위는 20세에서 49세 사이로 평균 연령은 35.2세, 자녀의 평균 연령은 3.8세였으며 자녀의 성별은 남아 53.0%, 여아 47.0%로 다소 고르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이하 0.7%, 고졸 23.4%, 대졸 69.0%, 대학원졸 이상이 6.9%로 대체적으로 고등교육을 이수한 상태였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취업모가 51.8%, 미취업모가 48.2%로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취업모의 경우 사무/기술직이 24.6%로 가장 많았다. 가정의 월 평균수입은 100만원 미만 0.5%, 100-199만원 6.9%, 200-299만원 미만 19.9%, 300-499만원 46.8%, 500만 원 이상이 27.0 %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측정도구는 세 가지로 타당화 대상 척도(EGSCP)와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준거척도 두 가지(PSOC-Efficacy, PPC)로 구성된다.

양육 효능감 척도(EGSCP)

Meunier와 Roskam(2009)이 3세에서 7세 사이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한 Echeele Globale du Sentiment de Competence Parentals(EGSCP)는 부모가 가진 영역별 양육 효능감(domain-specific SEB)과 효능감 형성에 관련하는 관련 인지구조(related Cognitive Construct)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다. EGSCP는 자녀 양육의 영역을 훈육, 놀이, 애정, 일상체계 조직 교육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된 영역별 양육 효능감과 부모의 책임소재, 결과 통제, 수행동기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된 관련 인지구조를 측정한다. EGSCP는 프랑스에서 제작된 측정도구나 제작자에 의해 영문판으로 번안되어 게재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영문판의 EGSCP를 번안 사용하였다(영문명: General Scale of Parental SEBs). 응답 방식은 Likert식 6점 척도로 1점(전혀 아니다)에서 6점(매우 그렇다) 중에서 어머니의 평소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정도를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60에서 .84로 나타났다.

부모효능감 척도(Parenting Sense of Competence-Efficacy: PSOC-Efficacy)

어머니의 일반적 양육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하여 신숙재(1997)가 번안·수정한 척도 PSOC-Efficacy의 총 16문항 중, 부모 역할에서의 유능감과 부모로서의 문제 해결 기술과 지식에 관련한 부모의 기대를 측정하는 부모효능감 요인(Efficacy) 9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6점(매우 그렇다)의 Likert식 6점 척도로 응답하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2였다.

지각된 양육유능감 척도(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PPC)

어머니의 일반적 양육 효능감 및 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Frank, Jacobson과 Hole(1986)이 개발한 가족 경험 질문지(Family Experience Questionnaire)의 지각된 양육 유능감(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척도를 안지영(2001)이 2-3세 영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의 도구는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부모로서의 통제력을 물어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1점(전혀 아니다)에서 6점(매우 그렇다)의 Likert식 6점 척도로 응답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s α 가 .71이었다.

연구절차

문항 번안 및 예비조사

한국판 양육 효능감 척도(K-EGSCP)의 타당화 연구를 위하여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평정 가능한 척도의 제작을 목적으로 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EGSCP의 37개 문항들은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안한 후, 영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한 아동학 전공자 2인이 역번안하여 원문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지를 확인하여 수정하였다. 아동학 박사 2인의 내용 검토과정을 거친 질문지는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예비조사가 실시되었다. 예비조사는 연구 대상의 특성에 해당하는 어머니 2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시행시간은 1인당 평균 1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설문 완료 후 어머니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미가 모호하거나 어려운 문항을 수정하였다. 또한 원 척도의 Likert식 5점 척도에서 중립적 반응(3점)의 빈도를 줄이기 위하여 6점 척도로 반응양식을 수정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최종 37개 문항의 본 조사를 위한 질문지가 완성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판 양육 효능감 척도(K-EGSCP)의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

본 조사의 자료수집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총 11개 기관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대상 기관의 원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알리고 참여 가능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완성된 질문지는 다른 질문지와 함께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하여 전달하였다. 질문지는 설문 참여에 동의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아 편으로 전달 및 회수하였다. 설문지와 함께 응답방법이 적힌 안내문이 동봉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연구 대상의 연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응답자가 적절하지 못하거나 미흡하게 응답된 설문지를 제외하여 최종분석 자료를 선별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한국판 양육 효능감 척도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고 준거척도와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공인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한국판 양육 효능감 척도(K-EGSCP)의 요인 구조를 살펴보기에 앞서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행렬을 바탕으로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값이 대체로 0에 가까워 요인구조를 찾아내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변수(이순목, 1995)를 검토하였다. 이에 3번(-.048~.154), 31번(-.176~.079) 문

항의 상관계수의 범위가 전반적으로 0에 가까워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탐색적 요인분석은 전체 37문항에서 두 문항을 제외한 35개 문항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1을 바탕으로 실시된 탐색적 요인분석은 척도의 문항 측정결과에 공통분산을 비롯한 고유분산이 포함되어있을 것으로 보여 공통요인분석의 모형을 선택하였으며 단일 주축분해법을 사용하였다. 회전방식은 이론 변수들 간의 관계에 상관이 존재하며 요인 간의 상관을 바탕으로 2차 요인을 구성하는 본 척도의 구조에 따라 사각회전(oblimin)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 적합성 지수는 .90으로 문항이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Barlett 검증 결과는 $\chi^2(595, N=610)=9187.46, p<.001$ 으로 유의미한 공통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절한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유치(eigenvalue) 1.0이상과 Scree 도표를 기준으로 요인 추출한 결과, 한국 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한 양육 효능감 척도(K-EGSCP)의 요인 수는 원 척도(EGSCP)의 관련 인지구조 요인의 3가지 중 수행 동기(Mastery Motivation) 요인을 제외한 7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여겨졌다. 수행 동기 요인을 구성하던 4개의 문항은 원 척도의 결과와는 달리 고유치를 중심으로 회전시킬 경우 혼육 요인(36, 37번)과 결과 통제 요인(34, 35번)에 혼재되어 분류되었다. 요인 수를 고정시켜 회전시킬 경우 4문항 중 34번 문항을 제외한 세 문항이 한 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지만 이 경우에도 타 요인과의 교차 부하량이 높아 별도의 요인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고유치를 바탕으로 7개 요인으로 분석된 결과를 사용하였으며 수행 동기 요인 4문항을 최종 문항에서 제외하였다. 이들 4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은 모두 기

표 1. 한국판 양육 효능감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내용	요인						
	1	2	3	4	5	6	7
13 내 아이는 나에게 매우 사랑 받고 있다고 느낀다.	.73						
15 내 아이는 나의 행동에서 내가 자신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알고 있다.	.70						
14 내 아이가 기분이 상했을 때 내가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을 아이는 알고 있다.	.67						
16 나는 자녀를 적절하게 양육하는 부모임이 확실하다.	.64						
17 나는 내 아이가 고통 받기 시작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48						
22 나는 내 아이의 생활습관(수면습관, 식습관 등)을 통제하지 못한다. ㉔		.80					
21 나는 아이가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하지 못한다. ㉔		.77					
20 나는 내 아이가 규칙적으로 정해진 하루 일과를 해내게 하지 못한다. ㉔		.69					
19 나는 내 아이가 성공적으로 하루 생활을 규칙적으로 지키게 한다.		.65					
18 나는 내 아이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일상생활 체계를 만들 수 있다. ^a	.41		.42				
2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아이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 ㉔		.74					
1 나는 아이가 내 말을 잘 듣게 하는 것이 어렵다. ㉔		.72					
6 나는 내 아이의 인생을 통제할만한 힘이 없다고 느낀다. ㉔		.56					
4 아이가 내가 정해놓은 한계를 시험할 때면 나는 극도로 의욕을 잃는다. ㉔		.56					
36 종종 나는 내 아이의 감정변화를 알아챌 수 없을 만큼 나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 ㉔		.46					
5 내 아이는 종종 내가 원하는 것과 매우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 ^a ㉔		.45					
37 때때로 내가 지치면 나는 보통 때에는 아이가 하지 못하게 하는 일도 그냥 하도록 내버려둔다. ^a ㉔		.42		.35			
7 내가 침착한 상태이면 내 아이가 화가 나도 잘 다룰 수 있다.	.32		.40				.31
9 나는 아이와의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91			
10 나는 내 아이의 즐거운 놀이 친구이다.				.86			
8 아이와의 놀이는 내가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 중의 하나이다.				.78			
11 나는 내 아이와 놀만한 것들을 항상 생각해낼 수 있다.				.77			
12 정기적으로 아이와 함께 앉아 책을 읽거나 둘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내게는 어렵지 않다.				.63			
24 내 아이가 자신의 주변에 관해 더 많이 알 수 있게 해주고 싶지만 이것은 내가 잘 할 수 없는 것이다 느낀다. ㉔					.91		
25 나는 내 아이에게 세상에 대해 가르쳐주는 것을 그리 잘하지 못하는 것 같다. ㉔				.78			
23 나는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 적절한 수준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어렵다. ㉔				.69			
29 아이들의 행동 문제는 대개 부모들의 잘못 때문이다.					.74		
28 아이들이 가진 대부분의 행동 문제는 부모가 보다 나은 양육법을 시행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것들이다.					.70		
26 내 아이가 보이는 행동 문제는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잘못이다.					.61		
27 부모로서 내가 겪었던 불행과 성공은 나 스스로의 행동에서 나온 결과이다.					.47		
33 부모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고 나면 아이를 양육하는데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㉔						.64	
34 아이가 자주 짜증을 부려도 부모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63		
32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존재한다.					.57		
30 아이를 기르면서 겪게 되는 모든 힘든 상황에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좋은 양육행동과 나쁜 양육행동이 항상 존재한다.					.54		
35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짜증을 부리면 나도 포기할 것이다. ^a			.35			.35	.38
고유치	9.15	3.20	2.38	1.73	1.48	1.31	1.14
분산율(%)	26.13	9.13	6.79	4.95	4.22	3.74	3.25
누적분산율(%)	26.13	35.26	42.06	47.01	51.23	54.97	58.22

a 두 개 이상의 요인에 걸쳐 교차 부하량을 보여 최종 제거된 문항/ ㉔ 역채점 문항

표 2 한국판 양육 효능감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연구 모형	χ^2	df	CMIN	NNFI	CFI	SRMR	RMSEA	
							LO	HI
	839.02**	366	2.29	.89	.90	.06	.05	.06

**p<.001

존의 척도가 가진 요인 구성과 동일한 형태로 요인분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하나의 문항이 두 개 이상의 요인 모두에서 .30이상의 부하량을 보이는 7번과 18번 문항 2개를 척도 구성에서 제외하였다. EGSCP가 영역별 양육 효능감과 관련 인지구조를 측정하는 2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 수를 2개로 지정하여 직각 회전(Varimax)한 결과 교차 부하값이나 탈락 문항 없이 2개 요인으로 나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최종 선정된 29개 문항의 내용과 요인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이차 2개 요인(영역별 양육 효능감/관련 인지구조)과 각 요인의 일차 하위요인 간의 위계적 구조를 다시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2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모형의 적합성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부합도지수 중 NNFI, CFI, 절대부합도지수 중 SRMR과 RMSEA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839.02$ ($p<.001$), $\chi^2/df=2.29$, SRMR=0.06, IFI=0.90, NNFI=.89, CFI=0.90, RMSEA=0.05 (0.05~0.06)이었다. 연구모형의 카이제곱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집의 크기가 대표본일 경우 카이제곱 값이 작은 차이에도 민감하게 평가되는 특

성을 감안하여 다른 적합도 지수를 바탕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고려하였다. 일반적으로 SRMR이 .10 이하면 대체로 양호한 모델, RMSEA이 .05이하일 경우 아주 양호한 모델, CFI, NNFI 값이 0.9이상이면 모형이 양호함을 나타내는 것(문수백, 2009)을 바탕으로 고려할 때, 한국판 양육 효능감 척도의 2개 2차 요인과 7개 1차 요인의 위계적 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문항과 1차 요인 간, 그리고 1차 요인과 2차 요인 간 표준화 계수가 모두 유의마하고 적절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각의 문항들이 문항을 구성하는 1차 요인을 설명하는 지표로 타당하며, 양육 효능감 요인의 하위 5개 요인과 관련 인지구조의 하위 2개 요인 또한 2차 요인의 타당한 지표임을 시사한다.

영역별 양육 효능감과 관련 인지구조 간의 관계

한국판 양육 효능감 척도의 영역별 양육 효능감의 5개 하위요인과 관련 인지구조의 2개 하위요인 간의 요인별 상관을 분석한 결과 하위요인 간에 대체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양육 효능감의 5개 하위요인은 각각의 하위요인 간에 모두 정적 상관(.32~.61)을 보여, 한 가지 영역에서 양육 효능감이 높을 경우 다른 영역에서도 비슷하게 높은 양육 효능감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놀이 영역과 애정 영역 간의 상관관계(.6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관련 인지구조의 하위요인인 부모의 책임과 결과 통제소재 요인

표 3. 한국판 양육 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 간 관계

	영역별 양육 효능감				관련 인지구조		
	애정	일상체계 조직	훈육	놀이	교육	책임	통제
애정	-						
일상	.35***	-					
훈육	.43***	.38**	-				
놀이	.61***	.32**	.43***	-			
교육	.47***	.47**	.49***	.42***	-		
책임	-.07	-.09*	-.06	-.06	-.10**	-	
통제	.26***	.16***	.16***	.21***	.23***	.40***	-
PSOC-Efficacy	.63***	.68***	.61***	.53***	.67***	-.11**	.27***
PPC	.60***	.65***	.65***	.56***	.63***	-.18**	.38***

*** $p < .001$, ** $p < .01$, * $p < .05$

은 .40의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책임 요인은 영역별 양육 효능감의 5개 하위요인 중 일상체계 지원과 교육의 두 개 요인과만이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이 또한 매우 낮은 정도의 부적 상관(-.09, -.10)이었다. 반면, 결과 통제소재 요인은 양육 효능감의 영역 5개와 모두 정도는 높지 않으나 유의미한 정적 상관(.16~.26)을 나타내었다. 하위 영역별 상관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4. 한국판 양육 효능감 척도의 신뢰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영역별 양육 효능감	전체	.91
	애정	.80
	일상체계조직	.82
	훈육	.75
	놀이	.89
	교육	.83
인지구조	전체	.75
	책임	.73
	통제	.65

한국판 양육 효능감 척도의 공인타당도

한국판 양육 효능감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준거척도인 Gibaud-Wallston과 Wandersman (1978)의 PSOC-Efficacy, Frank 등(1986)의 PPC와 한국판 양육 효능감 척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준거 관련 척도와 한국판 양육 효능감 척도의 하위 요인 간의 상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영역별 양육 효능감의 하위요인과 준거척도 간에는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PSOC-Efficacy: $r = .53 \sim .68$, $p < .001$, PPC: $r = .56 \sim .65$, $p < .001$), 특히 일상체계조직, 훈육, 교육 요인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관련 인지구조의 하위요인인 부모의 책임 요인과 준거척도 간에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PSOC-Efficacy: $r = -.11$, $p < .01$, PPC: $r = -.18$, $p < .01$) 결과 통제 요인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PSOC-Efficacy: $r = .27$, $p < .001$, PPC: $r = .38$, $p < .001$). 이를 통해 영역별 양육 효능감과

관련 인지구조의 하위요인들 모두가 일반적 양육 효능감의 측정치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판 양육 효능감 척도의 신뢰도

한국판 양육 효능감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전체 척도와 1차 하위요인 7개와 2차 하위요인 2개의 요인별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한국판 양육 효능감 척도의 29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는 .88로 높은 편이었다. 2차 하위요인인 영역별 양육 효능감과 관련 인지구조 요인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각각 .91과 .75로 나타났으며, 영역별 양육 효능감의 하위 5개 요인의 Cronbach's α 는 .75~.89 사이로, 관련 인지구조의 2개 하위요인은 .65~.73의 신뢰도를 보여 대체적으로 양호한 문항 동질성을 보였다. 각 요인별 내적합치도 계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의 영역별 양육 효능감과 관련 인지구조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양육 효능감 척도(EGSCP)를 국내에서 적용하기 위하여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판 양육 효능감 척도(K-EGSCP)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원 척도가 8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수행동기 요인이 제외되고 7개의 하위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GSCP는 수행동기 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새로운 문항을 개발하는 방법과 기존에 있는 척도(PLOC; Parental Locus of Control, Campis et al., 1986)에서 문항을 차용하는 방법을 동시에 선택하

였다. 이 때 새롭게 수행동기 측정을 위하여 개발된 문항이 기존 도구에서 선별된 다른 문항과 한 가지 요인으로 묶이지 못하고 별개의 요인으로 분리되어 이러한 결과를 보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PLOC의 문항은 양육의 여러 영역 중에서 훈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Sabatelli & Waldron, 1995). 본 연구에서 실시한 요인구조 탐색에서도 수행동기의 문항 중의 일부는 훈육 요인과 높은 고유부하량을 보였다. 따라서 수행동기의 문항을 별도의 요인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Badura(1989)가 동기와 효능감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지만 EGSCP는 동기의 유형 중 수행동기에 국한하여 동기를 측정하고 있다. 현재 동기에 관련한 이론들은 동기라는 단일 개념 속에서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Deci, 1975), 외적 동기 내에서의 유형 세부화(Deci & Ryan, 1985)를 규명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관련 인지구조로서 수행동기만을 동기 요소로 측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EGSCP의 척도 요인구조에서 수행동기 요인을 제거하고 최종 7요인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본 척도에서 제거된 부모의 동기적 측면은 현재 동기 관련 선행연구가 동기의 개념을 점차 세분화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부모의 동기만을 대상으로 세부적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판 양육 효능감 척도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탐색적으로 추출되었던 2개의 2차 요인과 영역별 양육 효능감의 5개 하위요인 및 관련 인지구조의 2개 하위요인의 7개 1차 요인 구조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차 요인만으로 구성된 모델과 2차 요인을 가정한 모델의 적합도 모두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1, 2차 요인이 위계적

으로 구성된 모형도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척도는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전체 문항을 모두 사용하거나 각 하위 요인을 따로 사용하는 것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육 효능감에 관련하는 인지구조를 함께 측정할 수 있어 양육에 관여하는 부모의 인지적 측면을 보다 다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만 1세에서 2세의 영아를 가진 어머니를 대상에 포함시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한국판 양육 효능감 척도(K-EGSCP)는 3세 미만의 영아와 3세에서 7세 사이의 유아를 가진 어머니 모두를 대상으로 폭넓게 사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본 척도가 영아 연구에서의 어머니 양육 효능감을 측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영역별 양육 효능감과 관련 인지구조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넷째, 한국판 양육 효능감 척도의 공인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결과, 본 척도는 양육 효능감 측정을 위한 타당하고 신뢰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공인타당도를 위하여 사용한 영역일반 양육 효능감 측정도구 두 가지와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본 척도의 양육 효능감 영역 중 일상체계조직, 훈육, 교육 요인과 다소 상관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까지 양육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었던 영역일반 양육 효능감 도구가 자녀를 통제하고 훈육하는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견해(Coleman & Karraker, 1997; Meunier & Roskam, 2009; Sabatelli & Waldron, 1995)를 뒷받침한다. 또한 이들 도구가 학령기 자녀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자녀의 교육과 지도 능력을 중심으로 효능감을 측정한 것(Coleman & Karraker, 2000;

Dumka et al., 1996; Johnston & Mash, 1989)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영역별 양육 효능감 척도는 어머니의 상호작용 영역 중에서 훈육과 교육에 관련한 효능감 이외에도 애정과 놀이 등의 다양한 양육 상황에서의 부모의 효능감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에 더하여 후속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자녀의 양육을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로 제한되어 있다. 자녀 양육에의 아버지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척도의 타당화와 추가적인 교차타당화 연구를 통해 척도의 안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수준의 연구대상을 바탕으로 척도의 적용 범위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면 좋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양육 효능감의 요인과 관련 인지구조로 다루고 있는 척도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로서 척도의 타당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후속되는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관련 인지구조가 양육 효능감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의 척도에서 양육 효능감에 관련된 인지구조로 고려한 수행동기 요인이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동기는 개인의 자기효능감과 관련되어 행동을 설명하는 주요요소로 고려되는 것(Bandura, 1977, 1989)에 근거하여 양육 상황에서의 부모의 동기를 측정하는 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의 동기 측정은 양육 효능감과 함께 양육에서의 부모의 인지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미숙, 문혁준 (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8), 25-35.
- 김현미, 도현심 (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박현숙, 김이영 (2009). 부모효능감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부모-자녀 관계만족도와 부모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18(3), 297-304.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with AMOS17.0. 서울: 학지사.
- 서혜영, 이숙현 (1999). 남성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부모 역할 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257-280.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안지영 (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순목 (1995). 요인분석 I. 서울:학지사.
- Abidin, R. R. (1986). *Parenting Stress Index*.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llen, C. (1993). An investigation of parenting efficacy.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Georgia, Athens.
- Ballenski, C. B., & Cook, A. S. (1982). Mothers perception of their competence in managing selected parenting tasks. *Family Relations*, 31, 489 - 494.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s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 - 147.
- Bandura, A. (1989). Regulation of cognitive process through perceived self-efficacy. *Developmental Psychology*, 25, 729 - 735.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1996). Multifaceted impact of self-efficacy beliefs on academic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7, 1206-1222.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V., & Pastorelli, C. (2001). Self-efficacy beliefs as shapers of children's aspirations and career trajectories. *Child Development*, 72, 187 - 206.
- Bandura, A., & Locke, E. A. (2003). Negative self-efficacy and goal effects revisited.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 87 - 99.
- Bornstein, M. H., & Tamis-LeMonda, C. S. (1989). Maternal responsiveness and cognitive development in children. In M. H. Bornstein (Ed.), *Maternal responsiveness: Characteristics and consequences* (pp.49 - 61). San Francisco: Josey-Bass.
- Bugental, D. B. (1991). Affective and cognitive processes within threat-oriented family systems. In I. E. Sigel, A. V. McGillicuddy-DeLisi, & J. J. Goodnow (Eds.), *Parental*

- belief systems: The consequences for children.* Hillsdale, NJ: Erlbaum.
- Bugental, D. B., Blue, J., & Cruzcosa, M. (1989). Perceived control over caregiving outcomes: Implications for child abuse. *Developmental Psychology*, 25, 532-539.
- Campis, L. K., Lyman, R. D., & Prentice-Dunn, S. (1986). The parental locus of control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5, 260-267.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0).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mothers of school-age children: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correlates. *Family Relations*, 49, 13 - 24.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3). Maternal self-efficacy beliefs, competence in parenting, and toddlers' behavior and developmental statu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4, 126-148.
- Conrad, B., Gross, D., Fogg, L., & Ruchala, P. (1992). Maternal confidence, knowledge, and quality of mother - toddler interactions: A preliminary stud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3, 353 - 362.
- Cutrona, C. E., & Troutman, B. R. (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 - 1518.
- Deci, E. L. (1975). *Intrinsic motivation.* New York: Plenum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Donovan, W. L., & Leavitt, L. A. (1985). Simulating conditions of learned helplessness: The effects of interventions and attributions. *Child Development*, 56, 594 - 603.
- Donovan, W. L., & Leavitt, L. A. (1989). Maternal self-efficacy and infant attachment: Integrating physiology, perceptions, and behavior. *Child Development*, 60, 460 - 472.
- Donovan, W. L., Leavitt, L. A., & Walsh, R. O. (1990). Maternal self-efficacy: Illusory control and its effect on susceptibility to learned helplessness. *Child Development*, 61, 1638-1647.
- Dunka, L. E., Prost, J., & Barrera, M., Jr. (2002). The parental relationship and adolescent conduct problems in Mex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Couple and Relationship Therapy*, 1, 37 - 57.
- Dunka, L. E., Stoerzinger, H. D., Jackson, K. M., & Roosa, M. W. (1996).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agency measure. *Family Relations*, 45, 216 - 222.
- Frank, S. J., Jacobson, S., & Hole, C. B. (1986). *The parenting alliance: Bridg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and parenting.* Unpublished manuscript, Michigan State University.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 sense of competence (PSOC)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Haidt, J., & Rodin, J. (1999). Control and efficacy as interdisciplinary bridg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3*, 317 - 337.
- Izzo, C., Weiss, L., Shanahan, T., & Rodriguez-Brown, L. (2000). Parental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adjustment in Mexican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Prevention & Intervention in the Community, 20*, 197 - 213.
- Johnston, G. W.,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onsult Clinical Psychology, 18*, 167-175.
- Jones, T. L., & Prinz, R. J. (2005). Potential roles of parental self-efficacy in parent and child adjustment: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 341 - 363.
- Lovejoy, M. C., Verda, M. R., & Hays, C. H. (1997). Convergent and divergent validity of measures of parenting efficacy and control.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6*, 366 - 376.
- MacPhee D., Fritz J., & Miller-Heyl, J. (1996). Ethnic variations in personal social networks and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7*, 3278 - 3295.
- Meunier, J-C., & Roskam, I. (2009). Self-efficacy beliefs amongst parents of young children: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Journal of Child & Family Studies, 18*, 495-511.
- Sabatelli, R., & Waldron, R. (1995). Measurement issues in the assessment of the experiences of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969 - 980.
- Sadri, G., & Robertson, I. T. (1993). Self-efficacy and work-related behavior: A review and meta-analysi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2*, 139 - 152.
- Swick, K. J., & Hassell, T. (1990). Parental efficacy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Instructional Psychology, 17*, 24 - 32.
- Teti,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t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Vancouver, J. B., Thompson, C. M., & Williams, A. A. (2001). The changing signs in the relationships among self-efficacy, personal goals, and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 605 - 620.
- Wells-Parker, E., Miller, D. I., & Topping, S. (1990). Development of control of outcome scales and self-efficacy scales for women in four life ro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564-575.
-
- 1차 원고 접수: 2011. 10. 14
수정 원고 접수: 2011. 11. 14
최종 게재 결정: 2011. 11. 15

Validation of the Echelle Globale du Sentiment de Competence Parentale(EGSCP) in Korea: A Measure of Domain-Specific Self-Efficacy and Related Cognitive Constructs for Parents

Jihyun Sung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Jeehee Baek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Echelle Globale du Sentiment de Competence Parentale(EGSCP) scale developed by Meunier and Roskam(2009) to validate its use in Korea. EGSCP assessing five domain-specific self-efficacy beliefs and related cognitive constructs of parents was double-translated and modified to fit Korean subjects(K-EGSCP). The study consisted of two groups of subjects for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respectively: two hundreds and two mothers of young children in range of three to seven-year-olds and four hundreds and twenty three mothers of toddlers and young children in range of one to seven years of age. Twenty nine items and seven factors including Nurturance, Instrumental Care, Discipline, Play, Teaching, Parental Responsibility, and Parental Control of Outcomes appeared in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s a result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 hierarchical model consisting of two second-level-factors and seven first-level-factors confirmed its validity. The total factors of K-EGSCP demonstrated proper internal consistency and clear patterns of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With existing domain-general and task-specific measures of parenting efficacy, the Korean version of the EGSCP adds domain-specific aspects of self-efficacy in parenting and includes other related cognitive construct.

Keywords: domain-specific parenting efficacy, related cognitive construct, parenting efficacy scale, exploratory factor analyses, confirmatory factor analyses